

한국어 교육의 ‘경험’ 의미와 기능어 연구

김진호*

- I. 서론
- II. ‘경험’ 표현 종결 어미의 교육 내용
- III. ‘경험’ 표현 연결 어미의 교육 내용
- IV. 결론

I. 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 이들 4 영역의 향상에는 한국어의 문법 능력이 내재하고 있다. 특히 표현 영역인 ‘말하기와 쓰기’에서의 문법적 능력은 화자의 한국어 능력을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지도하는 교수자는 이들 문법 항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어는 첨가어로서 타 언어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조사와 어미에 의해 다양한 문법적 성질을 나타낸다. 높임법, 사·피동법, 문장종결법, 시제법, 부정법과 같은 한국어의 독자적인 문장구성 방식을 제외하면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은 조사와 어미에 의해 나타난다. 이런 한국어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문법 교육도 조사와 어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교육 역시 단계별 교육과정에 따라 개별 조사와

* 가천대학교 리버럴아츠칼리지 조교수, 한국어문법. hhjk11@gachon.ac.kr

어미 순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의미기능으로 쓰이는 문법 형태, 특히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다양한 형태의 어미들을 유기적으로 교육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조사나 어미들을 한 의미 영역으로 묶고, 그 묶음 속에서 개별 문법 형태들의 문법 기능을 비교, 대조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크다.¹⁾

본고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들과 한국어능력시험, 문법서 등을 참고하여 ‘경험’의 의미 기능으로 쓰이는 문법 형태들을 분류하여 그 의미적, 통사적 차이를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경험’은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경험’ 표현과 관련한 문법형태는 아래와 같이 종결형과 연결형으로 나타난다.

(1) ‘경험’ 표현의 문법 형태

- ㄱ. 종결어미: (초)V-아/어 보다 / (초)V-(으)ㄴ 적이 있다/없다
- ㄴ. 연결어미: (중)V-(으)니까 / (중)V-아/어 보니까 / (중)V-고 보니까 / (중)V-고 보면 / (중)V-고 나니까 / (중)V-고 나면 / (중)V-다가 보니까 / (중)V-다가 보면 / (중)V-노라면 / (중)V-왔/있더니 / (중)V-더니

지금까지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 등에서는 이들 문법 형태들의 개별적인 통사·의미적 특징만을 서술했을 뿐, ‘경험’이라는 의미장으로 묶어 비교, 대조하는 연구에는 소홀했었다. 본고는 (1)의 문법 형태²⁾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뿐만 아니라 유사한 문법 형태들 간의 차이에도 대해서도 밝히려 한다.

1) ‘이유·원인’의 ‘-아/어서’와 ‘-(으)니까’를 각각의 문법 형태로 교육할 경우, 학습자는 이 둘 사이의 통사적, 의미적 제약을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문장에서 치환이 가능한 문법 형태로 알게 된다. 그러나 한 의미 영역으로 묶어 비교, 대조해 교육할 경우, 명령문과 청유문에서의 제약 조건에 따라 ‘-아/어서’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2) 구형태의 복합 구성을 가진 항목들에 대해 ‘통사적인 구’, ‘연결구’, ‘유사연결어미’, ‘복합구상’, ‘표현항목’ 등으로 불리는 것(김지혜, 2008:17 재인용)을 본고에서는 ‘문법 형태’ 또는 ‘문법 항목’으로 사용한다.

II. '경험' 표현 종결 어미의 교육 내용

1. '-아/어 보다'의 통사·의미 기능

문법 형태 '-아/어 보다'는 두 가지 의미기능을 지닌다. 즉 어떠한 행동을 '시도'하거나 '경험'한다는 의미가 그것이다. 먼저 선행절 주어의 차이에 따른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1) ㄱ. 저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 봐요.
 ㄴ. 한국에 와서 김치를 처음 먹어 봤어요.

위 예문은 선행절의 주어가 모두 1인칭이다. 그 가운데 (1.ㄱ)은 주어의 '시도'를 나타내고, (1.ㄴ)은 '경험'을 표현한다. 반면, 아래 예문은 2인칭 주어에게 어떤 행동을 시도할 것을 권유하는 문장으로 문법 형태가 달라진다.

- (2) 가. 하얀색 운동화 있어요?
 나. 네. 있어요. 한번 신어 보세요.

(1.ㄱ)처럼 화자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시도하는 의미일 때는 기본 문법 형태인 '-아/어 보다'의 현재형을 사용하며, 경험을 표현할 경우에는 (1.ㄴ)처럼 '-아/어 봤다'의 과거 형태를 사용한다.³⁾ 그리고 (2)의 대화문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동을 시도할 것을 권유하는 '-아/어 보세요'로 나타난다. 여러 형태소들이 들어간 문법 형태의 교육은 국어 문법 교육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⁴⁾ 이 문법 형태의 선행어는 동사적 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3) 문법 형태 '-아/어 봤다'는 '경험'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저는 마트에서 김치를 사기 전에 먹어 봤어요"와 같이 '시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4)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내국인을 위한 문법 교육과 같이 형태소의 분석과 그에 따른 의미적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별 문

2. ‘-(으)ㄴ 적이 있다/없다’의 통사·의미 기능

문법 형태 ‘-(으)ㄴ 적이 있다/없다’는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며, ‘-아/어 보다’와 결합한 ‘-아/어 본 적이 있다/없다’로 많이 나타난다.

(3) ㄱ. 가.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나. 네. 한 번 가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ㄴ. 가. 한강 유람선을 타 본 적이 있어요?

나. 아니요. 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으)ㄴ 적이 있다.’는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한 경험이 있을 때 사용하고(4.ㄱ), ‘-아/어 본 적이 있다’는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을 때 사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나타난다(4.ㄴ).

(4) ㄱ. 저는 창덕궁에 간 적이 있어요.

ㄴ. 저는 창덕궁에 가 본 적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 두 문법 형태는 선행할 수 있는 동사의 의미적 자질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5) ㄱ. 저는 휴대전화를 수리 받은 적이 있어요.

ㄴ. 저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6) ㄱ. 저는 휴대전화를 수리 받아 본 적이 있어요.

ㄴ. *저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법 형태들은 결합가능한 선행어의 품사적 특징이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예문 (5)는 ‘-(으)ㄴ 적이 있다’가 의지가 있는 동사 및 의지가 없는 동사⁵⁾ 모두 쓸 수 있음에 반해 예문 (6)의 ‘-아/어 본 적이 있다’는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시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가 있는 동사에만 쓸 수 있다.

3. ‘-아/어 봤다’와 ‘-(으)ㄴ 적이 있다’의 통사·의미 기능

‘-아/어 봤다’는 경험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으)ㄴ 적이 있다’와 유사하다. 그러나 문법 형태 ‘-아/어 봤다’는 경험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으)ㄴ 적이 있다’는 경험한 때(시점)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

- (7) ㄱ. 저는 설악산에 가 봤어요.
 ㄴ. 저는 설악산에 간 적이 있어요.

(7.ㄱ)에서는 ‘설악산에 직접 갔었다’는 경험한 행동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고, (7.ㄴ)은 ‘갔다’는 행동의 결과보다 시점, 곧 때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어 봤다’는 경험의 시점에 제약이 없는 반면, ‘-(으)ㄴ 적이 있다’는 가까운 과거의 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차이가 나타난다.

- (8) ㄱ. 어제 막걸리를 마셔 봤어요.
 ㄴ. *어제 막걸리를 마신 적이 있어요.

경험한 행동을 강조하는 ‘-아/어 봤다’의 경우 특정한 과거 시기의 제약 없이 문법성을 지니는 반면(8.ㄱ), 가까운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8.ㄴ)은 비문법성을 드러낸다.

5) 의지가 없는 동사는 ‘잃어버리다, 도둑맞다, 넘어지다, 다치다, 기절하다, 쓰러지다, (감기에) 걸리다’ 등이 있다.

Ⅲ. ‘경험’ 표현 연결 어미의 교육 내용

1. ‘-(으)니까’와 ‘-아/어 보니까’의 통사·의미 기능

‘-(으)니까’의 선행절 내용은 화자가 경험한 행동이고, 후행절 내용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다. 즉 선행절의 행위를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행위 이후에 후행절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⁶⁾

- (1) ㄱ. 창밖을 보니까 친구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나. 할머니의 손을 잡으니까 손이 따뜻했어요.

경험의 ‘-(으)니까’는 항상 현재형으로 쓰인다. 후행절의 서술어는 현재나 과거 시제 둘 다 위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가 온다.⁷⁾

한편, ‘-아/어 보니까’의 선행절 내용은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시도한 행동의 경험을 나타내며, 후행절의 내용은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나 느낌, 의견을 나타낸다. 후행절은 보통 과거 시제가 온다.

- (2) ㄱ. 도서관에 가 보니까 시원하고 사람도 많았어요.
 나. 가. 김밥을 만들어 봤어요?
 나. 네.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쉬웠어요.

6) ‘-(으)니까’는 경험한 행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유·원인’과 결과로 잇기도 한다. 이 둘의 통사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 형태 ‘-기 때문에’와 바뀌 쓸 수 있으면 ‘이유·원인’, 바뀌 쓸 수 없으면 ‘경험’을 나타낸다. 둘째,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에 제약이 없으면 ‘이유·원인’, 1인칭(선행절)과 2,3인칭(후행절)으로 연결되면 ‘경험’을 나타낸다. 셋째, 시제 선어말 어미의 결합이 가능하면 ‘이유·원인’, 불가능하면 ‘경험’을 나타낸다. 넷째, ‘이유·원인’의 경우 문장종결형의 시제 결합에 제약이 없는 반면, ‘경험’의 경우 과거와 현재만 가능하다.

7) 이는 생략형 ‘-(으)나’와 강조형 ‘-(으)니까는’, ‘-(으)니까’로도 나타난다.
(예) ㄱ. 창밖을 보니(보니까는/보니까) 친구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나. 할머니의 손을 잡으니(잡으니까는/잡으니까) 손이 따뜻했어요.

예문 역시 도서관에 가보기 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김밥을 만들기 전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쉬웠음을 표현한다.

이처럼 ‘-(으)니까’와 ‘-아/어 보니까’는 경험한 행동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행절의 행동에 대한 판단은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 (3) ㄱ. 제주도에 가니까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ㄴ. 제주도에 가 보니까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예문 (3.ㄱ)과 (3.ㄴ)은 유사한 의미 구조를 지닌다. 전자는 단순한 행동의 결과로 후행절의 사실을 알았다는 의미임에 반해 후자는 화자의 의지적 시도에 의한 결과를 나타낸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제약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으)니까’는 앞의 주어는 1인칭이고, 뒤의 주어는 2, 3인칭으로 제약이 있지만 ‘-아/어 보니까’는 앞뒤의 주어가 같거나 달라도 쓸 수 있다.

- (4) ㄱ. (내가) 처음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다.
 ㄴ. (내가) 유학 와서 혼자 사니까 (내가) 힘들어요.(원인·이유)
- (5) ㄱ. (내가) 유학 와서 혼자 살아 보니까 (내가) 힘들어요.
 ㄴ. (내가) 처음 한국 음식을 먹어 보니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다.

예문 (5)의 문법 형태 ‘-아/어 보니까’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선택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문법 형태 ‘-(으)니까’의 문형에서는 주어 선택에 따라 그 의미 구조가 달라진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동일 주어 제약이 나타날 경우의 ‘-(으)니까’는 ‘원인·이유’의 용법임을 구분해 주어야 한다.

2. ‘-고 보니까’와 ‘-아/어 보니까’의 통사·의미 기능

문법 형태 ‘-고 보니까’는 화자가 선행절의 어떠한 행동을 완료한 다음 그것을 근거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나 느낌, 의견을 후행절에 나타낸다.

- (6) ㄱ.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ㄴ. 버스에서 내리고 보니까 우리 동네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예문 (6)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문법 형태 ‘-고 보니까’의 의미 구조는 ‘-(으)ㄴ 다음에 생각하니까, -(으)ㄴ 다음에 보니까’로 나타난다. 그리고 후행절은 과거 시제가 연결된다.

‘-고 보니까’와 형태적으로 유사한 ‘-아/어 보니까’는 화자가 어떠한 행동을 완료한 다음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아/어 보니까’는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시도한 다음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낸다는 의미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 (7) ㄱ.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ㄴ.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7. ㄱ)은 화자의 의지적인 행동의 결과로 인한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7. ㄴ)은 이야기를 한 행동의 완료 후의 결과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3. ‘-고 나니까’와 ‘-고 보니까’의 통사·의미 기능

문법 형태 ‘-고 나니까’는 화자가 어떠한 행동이 완료된 다음 그것을 계기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나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으)ㄴ 다음에’

와 유사한 의미 구조로 후행절은 보통 과거 시제가 온다.

- (8) ㄱ.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졌어요.
 ㄴ. 시험을 보고 나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됐다.
- (9) ㄱ.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익숙해졌어요.
 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됐다.

한편, ‘-고 나니까’는 어떠한 행동이 완료된 다음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고 보니까’와 바꿔 쓸 수 있으나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

- (10) ㄱ.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10. ㄱ)의 ‘-고 보니까’는 이야기를 한 것을 근거로 이해가 되었다는 의미인 반면, (10. ㄴ)의 ‘-고 나니까’에는 ‘계기’의 의미, 즉 이야기를 한 것을 계기로 이해가 되었다는 의미 구조이다.

4. ‘-다가 보니까’와 ‘-고 보니까’의 통사·의미 기능

문법 형태 ‘-다가 보니까’는 화자가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여 경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나 느낌, 의견을 나타낸다. 어떠한 행동을 계속하는 도중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 (11) ㄱ. 한국 신문을 매일 읽다가 보니까 한국어를 잘하게 됐어요.
 ㄴ. 음식을 자주 만들다가 보니까 음식 솜씨도 좋아졌다.

예문 (11)에서 보듯 이 문법형태의 후행절의 결과에는 ‘-게 되다.’와 ‘-아/어지다’가 자주 사용되며, 보통 과거 시제가 온다.

‘-다가 보니까’가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어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고 보니까’는 행동이 완료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어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 (12) ㄱ.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12. ㄱ)의 ‘-고 보니까’는 이야기를 한 다음(완료에서 결과)에 이해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12. ㄴ)의 ‘-다가 보니까’는 이야기를 하는 사이(반복하는 과정에서) 이해되었음을 표현한다는 차이가 나타난다.

- (13) ㄱ. 첫인상은 안 좋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ㄴ. 첫인상은 안 좋았는데 만나다가 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문법 형태 ‘-고 보니까’는 완료의 의미와 함께 일회성의 의미(13. ㄱ)인 반면, ‘-다가 보니까’는 반복성의 의미(13. ㄴ)이다.

5. ‘-다가 보면’과 ‘-노라면’의 통사·의미 기능

문법 형태 ‘-다가 보면, -노라면’의 선행절은 가정의 반복적인 경험을 표현하고, 후행절은 사실이나 의견을 표현한다.⁸⁾

- (14) ㄱ. 매일 꾸준히 운동하다가 보면 건강이 좋아져요.
 ㄴ. 가. 어떻게 하면 말하기를 잘할 수 있어요?

8) 후행절에는 ‘-게 되다’와 ‘-아/어지다’가 자주 사용되며, 현재나 미래 시제가 결합한다.

나. 한국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잘하게 될 거예요.

(15) ㄱ. 매일 꾸준히 운동하노라면 건강이 좋아져요.

ㄴ. 가. 어떻게 하면 말하기를 잘할 수 있어요?

나. 한국 친구와 이야기를 하노라면 잘하게 될 거예요.

문법 형태 ‘-다가 보면’의 유사 형태인 ‘-다가 보니까’와 ‘-고 보면’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다가 보니까’는 1인칭 주어가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적인 경험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후행절의 내용에 과거 시제가 쓰이는 반면, ‘-다가 보면’은 2인칭 주어가 반복하여 경험하면 알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후행절의 내용에 현재나 미래 시제가 쓰인다.

(16) ㄱ. (제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다가 보니까 발음이 좋아졌어요.

ㄴ. (네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다가 보면 발음이 좋아질 거예요.

(16. ㄱ)은 개인적 경험에 의한 결과로 “한국 드라마를 여러 번 많이 본 결과로 발음이 좋아졌다.”는 개인적인 경험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다. (16. ㄴ)은 일반적 사실의 경험으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 발음이 좋아질 것이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적 자질로 전자의 후행절은 과거형으로 후자의 후행절은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표현된다.

다음으로 ‘-고 보면’은 어떠한 행동의 시작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반면, ‘-다가 보면’은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여 경험하는 것을 가정으로 나타낸다.

(17) ㄱ. 김 선생님의 첫인상은 무섭지만 만나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김 선생님의 첫인상은 무섭지만 만나다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법 형태는 동일한 행동의 ‘시작’ 또는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즉 전자는 “김 선생님을 만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며, 후자는 “김 선생님을 여러 번 만난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6. ‘더니’와 ‘-았/었더니’의 통사·의미 기능

문법 형태 ‘더니’⁹⁾는 선행절의 내용에는 화자가 과거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을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느낀 상황(화자의 관찰)을 나타내고, 후행절의 내용에는 관찰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나 앞의 내용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선행절의 내용과 후행절의 내용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하고 후행절의 내용에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또한 선행절의 주어는 2, 3인칭이고, 후행절의 주어는 같거나 달라도 쓸 수 있다.

(18) ㄱ. 오전에는 사람이 별로 없더니 지금은 많아졌다.

ㄴ. 가: 지금 날씨 어때요?

나: 좀 전까지 춥더니 지금은 따뜻하네요.

-
- 9) ‘경험’의 ‘더니’와 ‘원인·이유’의 ‘더니’는 앞의 내용이 화자가 관찰한 2, 3인칭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고, 뒤의 내용이 2, 3인칭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점과 앞뒤의 주어가 같거나 달라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뒤의 주어가 다른 경우라도 ‘원인·이유’의 ‘더니’는 앞의 주어와 연관된 것이 주어가 되며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험’의 후행절의 주어는 선행절의 주어와 그 상관성이 없다.
- (1) ㄱ. 연하가 내게 다가오더니 (연하가) 나를 한 대 때리고 갔다.
 ㄴ. 아까는 눈이 오더니 지금은 비가 온다.(연관된 화제(날씨)지만 인과 관계 없음.)
- (2) ㄱ. 연하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연하가) 장학금을 탔다.
 ㄴ. 오전에 날씨가 흐리더니 비가 온다.(연관된 화제(날씨)고 인과 관계가 있음.)

예문의 문법 형태 ‘-더니’에 연결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는 ‘-았/었는데’가 사용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문법 형태 ‘-더니’의 선행절 주어는 2, 3인칭이라고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 1인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고 의미는 화자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말하는 경우이다.

- (19) ㄱ. 처음에는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더니 지금은 괜찮아졌다.
 ㄴ. 전에는 며칠 밤을 새워도 괜찮더니 요즘은 힘들어요.

문법 형태 ‘-았/었더니’¹⁰⁾는 선행절에는 화자가 자신의 과거 상황을 회상한 경험을 나타내고, 후행절에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나타낸다. 선행절의 행동을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행동한 다음에 뒤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의미이다. 문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20) ㄱ. 오늘 일찍 학교에 갔더니 교실에 아무도 없었다.
 ㄴ. 인사를 했더니 그 사람이 손을 흔들어 주었다.
- (21) ㄱ. 영희에게 영화를 보자고 했더니 약속이 있어서 안 된대요.
 ㄴ. 앤디 씨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감기에 걸렸대요.

10) ‘경험’의 ‘-았/었더니’와 ‘원인·이유’의 ‘-았/었더니’는 모두 앞의 주어가 1인칭인 점과 뒤의 내용에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경험’의 ‘-았/었더니’는 앞의 경험에 따른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의 발견에 초점을 맞춘 반면, ‘원인·이유’의 ‘-았/었더니’는 인과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또 ‘경험’의 ‘-았/었더니’는 뒤의 주어가 3인칭인 반면, ‘원인·이유’의 ‘-았/었더니’는 뒤의 주어가 1인칭이거나 그와 연관된 것이 주어가 된다.

- (1) ㄱ. (내가) 노래를 불렀더니 친구들이 박수를 쳐 주었다.(경험, 선행절 주어 1인칭, 후행절 3인칭)
 ㄴ. (내가) 허리를 다쳤더니 (내가)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이유·원인, 선행절 동일 주어)
 ㄷ. (내가) 노래를 불렀더니 (나의) 목이 아파요.(이유·원인, 1인칭과 연관 주어)

- (22) ㄱ.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담배를 피우지 말래요.
 ㄴ. 물에 빠진 놈 건져 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예문은 ‘경험’의 문법 형태 ‘-았/었더니’가 쓰인 것으로 문형의 구조에 차이가 나타난다. (20. ㄱ)과 달리 나머지 문장은 간접화법과 관련한 문장 구조이다. 예문 (20)은 1인칭 주어의 행동에 대한 회상으로 인한 사실의 발견을 표현한다. 그리고 (21)은 전형적인 간접화법문으로 1인칭 화자가 3인칭 청자에게 한 행동의 회상에 대한 3인칭 청자의 응답문이다. 마지막 (22)는 1인칭 주어의 행동에 대한 회상에 3인칭 청자의 행동 결과문이다.

7. ‘-고 보면’과 ‘-고 나면’의 통사·의미 기능

문법 형태 ‘-고 보면’은 선행절의 내용은 행동의 시작을 가정하여 나타내고, 후행절의 내용은 사실이나 의견을 나타낸다.

- (23) ㄱ. 가: 방금 철수 씨가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나: 듣고 보면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ㄴ. 가: 저 사람 인상이 차가워 보이는데 어때요?
 나: 만나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고 보면’의 선행절은 행동의 가정, 즉 듣는 것과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때 후행절은 보통 현재나 미래 시제가 온다. 이는 ‘-고 나면’과 유사 문법에 해당한다.

- (23') ㄱ. 가: 방금 철수 씨가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나: 듣고 나면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 나. 가. 저 사람 인상이 차가워 보이는데 어때요?
나. 만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문법 형태 ‘-고 나면’은 ‘-고 보면’과 유사한 문법으로 선행절 내용은 어떠한 행동이 완료된 것을 가정하여 나타내고, 후행절의 내용은 사실이나 의견을 나타낸다. 후행절은 보통 현재나 미래 시제가 온다.

- (24) 가.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나. 가.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IV. 결론

본고는 한국어 교육에 나타나는 문법 형태들을 동일한 의미 기능어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과 유사한 문법 형태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한 영역으로 ‘경험’ 표현의 형태들을 분류하여 이들을 한국어 문법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문법 형태는 종결 어미의 ‘-아/어 보다, -(으)ㄴ 적이 있다/없다와 연결 어미의 ‘-(으)니까, -아/어 보니까, -고 보니까, -고 보면, -고 나니까, -고 나면, -다가 보니까, -다가 보면, -노라면, -왔/었더니, -더나’이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들 문법 형태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습자들이 동일한 의미 기능어로 분류되는 이들 문법 형태 사이의 의미, 통사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정확한 문장 표현을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교수 학습 내용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수업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이다. ‘경험’의 문법 형태들 사이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어 봤다’는 경험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 반면 ‘-(으)ㄴ 적이 있다’는 경험한 때(시점)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 또한 ‘-아/어 봤다’는 경험의 시점에 제약이 없는 반면, ‘-(으)ㄴ 적이 있다’는 가까운 과거의 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차이가 난다.

둘째, ‘경험’의 ‘-(으)니까’와 ‘-아/어 보니’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에 차이가 나타난다. 즉, 전자는 화자의 단순한 행동의 결과로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함에 반해 후자는 화자의 의지적 시도에 의한 결과를 표현한다.

셋째, ‘-고 보니’와 ‘-아/어 보니’는 어떠한 행동의 완료 후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는 가운데, 후자는 화자가 의지를 가진 행동의 새 사실을 나타낸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고 보니’와 ‘-고 나니’는 전자가 선행절의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다면, 후자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계기’의 의미로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고 보니’는 행동이 완료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어 결과에 초점을 맞춘 반면, ‘-다가 보니’는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어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일회성과 반복성의 의미 차이도 나타난다.

넷째, ‘-다가 보니’는 1인칭 주어가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적인 경험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후행절은 과거 시제가 결합하는 반면, ‘-다가 보면’은 2인칭 주어가 반복하여 경험하면 알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기에 현재나 미래 시제가 결합한다. 끝으로 ‘-고 보면’은 어떠한 행동의 시작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반면, ‘-다가 보면’은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여 경험하는 것을 가정으로 나타낸다.

참고문헌

- 강승혜, 「학습자 중심 교수전략의 모색을 위한 검토」, 『이중언어학』 16, 이중언어학회, 1999.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2』,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권재일, 『국어의 복합문 연구』, 서울: 집문당, 1985.
- 김지혜, 『한국어 이유 표현 교육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2008.
- 김진수, 『국어접속조사와 어미 연구』, 서울: 탑출판사, 1987.
- 김진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서울: 박이정, 2008.
- 김수정,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연결 어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3.
- 김유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8.
- 김재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2003.
- 박영순, 「한국어문법 교육론」, 서울: 박이정, 1998.
- 박영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서울: 월인, 2001.
- 안주호, 「한국어교육에서의 원인 연결어미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1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
- 윤평현,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서울: 박이정, 2005.
- 이미혜,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표현항목’ 설정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1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
- 이미혜,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추측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5.
- 이민선, 「기능에 기초한 한국어 문법 교수 방안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4.
- 이지영, 「연결어미의 교수 모형:{-는데}」,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8.
- 이희자·이종희, 『한국어학습 학습자용 어미. 조사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2006.
- 주세형,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미를 구성하는 문법지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7, 이중언어학회, 2005.
- 최문석, 「중심의 연결어미 교육 방안 연구-‘-기에(는)’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4.
- 한송화, 「문법 요소의 연결을 통한 한국어교육-명령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 한재영 외, 『한국어 교수법』, 서울: 태학사, 2005.
- 허용 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서울: 박이정, 2001.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한국어 경험 표현의 문법 형태(종결어미: (초)V-아/어 보다 / (초)V-(으)ㄴ 적이 있다/없다, 연결어미: (중)V-(으)니까 / (중)V-아/어 보니까 / (중)V-고 보니까 / (중)V-고 보면 / (중)V-고 나니까 / (중)V-고 나면 / (중)V-다가 보니까 / (중)V-다가 보면 / (중)V-노라면 / (중)V-왔/었더니 / (중)V-더니)를 선정하고,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제시해야 할 교수 내용에 대해 살폈다. 한국어 교육에서 경험 표현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어 봤다’는 행동에 초점을 두어 표현 시점에 제약이 없지만 ‘-(으)ㄴ 적이 있다’는 경험의 시점에 초점을 두기에 가까운 과거를 표현할 수 없다.

둘째, ‘-(으)니까’는 단순한 행동의 결과로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의미 구조인 반면, ‘-아/어 보니까’는 화자의 의지적인 시도로 새로운 결과를 알았다는 의미 구조, 즉 화자의 심리적 태도에 차이가 나타난다.

셋째, ‘-고 보니까’는 어떠한 행동의 완료 후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아/어 보니까’와 차이를 드러내며,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구조적 차이에 의해 ‘-고 나니까’와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반복성을 드러내는 ‘-다가 보니까’와 달리 ‘-고 보니까’는 일회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넷째, ‘-다가 보니까’는 1인칭 주어의 개인적 경험의 결과를 표현하는 반면 ‘-다가 보면’은 2인칭 주어의 경험을 표현하는 차이가 있다. ‘-고 보면’과 ‘-다가 보면’은 행동의 반복적 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상, 한국어 경험 표현의 문법 형태 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 개별 문법 형태의 정확한 통사·의미·담화 기능적 특징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사 문법 형태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고려하여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의 의미 기능어, 경험 의미 기능어, 경험의 문법 형태, 의미 기능어 문법기술, 문법 형태

• Abstract •

Studies on Experience Meaning and Function Word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 Jin-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grammatical forms of experience and use them in practical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mmatical forms that deliver a meaning of experience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아/어 봤다' focuses on experienced action, while '-(으)ㄴ 적이 있다' focuses on the time of experience. The former one does not place a time restriction, while the latter cannot be used for the experience of the near past. Second, '-(으)니까' presents the recognition of the fact resulted from mere action. On the other hand, '-아/어 보니까' shows the fact recognized by volitional attempts. Third, '-고 보니까' and '-아/어 보니까' expresses the fact recognized after a certain action is comple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however, a speaker delivers a new fact learned from volitional action with the latter one. '-고 보니까' presents the content of the preceding clause as a reason for the judgment, while '-고 나니까' connects the preceding clause and the following clause with the meaning of 'opportunity'. In addition, '-고 보니까' focuses on the result as it presents the fact known after action is completed; '-다가 보니까' focuses on the process as it presents the fact known in the process of repeated action. Fourth, '-다가 보니까' is combined with the past tense since it shows the result known in the process of the first person's experience. However, '-다가 보면' is combined with the present tense or the future tense since it present a general fact that can be known when the second person experience something repeatedly. Lastly, '-고 보면' assumes the beginning of a certain action, while '-다가 보면' expresses an assumption of repeated, experienced action.

Key word : meaning and Function word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meaning and function words of experience, grammatical forms of experience, grammatical description of meaning and function words, grammatical forms

